

- 기는 하다 (хотя)

- 크다 - 크기는 했지만 - 크기는 컸지만
- 크기는 크지만 - 크기는 하지만
- 크기는 하겠지만 - 크기는 크겠지만

- 먹다 - 먹기는 했지만 - 먹기는 먹었지만
- 먹기는 하지만 - 먹기는 먹지만
- 먹기는 먹겠지만 - 먹기는 하겠지만 / 할 것이지만 / 거지만

- 기는 하다 (хотя)

- 이 책을 읽기는 했지만 기억이 안 나요.

- 저는 늦게 도착하기는 했지만 회의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 강원도가 멀기는 한데 겨울 전에 정말 가보고 싶어요.

- 학생들은 학교에 항상 다니기는 하는데 수업시간 동안에 잠을 자요.

- 새 아이폰은 진짜 비싸기는 하겠지만 살 거예요

- 기는 하다 (хотя)

- 이 셔츠는 예쁘기는 하지만 비싸요.

- 저는 힘들기는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Сомнение в вопросе:

- 이런 집에 사람이 살긴 살아?

- 너가 진짜 피아노를 칠 수 있긴 있어?

- 그 남자가 정말 오긴 오는 거야?

- 기는 하다 (хотя)

- 넘어져서 다친 곳은 괜찮아요?

- 아프기는 하지만 참을 수 있어요.

- 어제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신 책을 다 읽었어요?

- 읽기는 읽었지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 기는 하다 (хотя)

- Прош. вр. к 하다

지만 – разные лица

언니는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기는 하지만 – одно лицо

언니는 키가 크기는 하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X)

- 기는 하다 (хотя)

- 아침밥을 먹기는 먹었지만 늦어서 빨리 먹고 갔어요.
- 영어 가르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다 피곤해서 잤어요.
- 점심에 배가 고프기는 했지만 안 먹었어요.
- 컴퓨터를 카기는 켜지만 너무 느려요.
- 비 오기는 오지만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 점심밥이 맵기는 하겠지만 할머니께서 준 것이 내가 먹어야지.

Пригласительное и пове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я

Пове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

(으)세요. 가다 - 가세요. 먹다 - 먹으세요.

(으)십시오. 가다 - 가십시오. / 먹다 - 먹으십시오. 드십시오.

(вторая основа)

- 가다 - 가. / 먹다 - 먹어
- +**라** 가다 - 가라. 먹다 - 먹어라. 하다 - 해라.

Пригласительное и повел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я

Пригласительное наклонение

가다 – 가요./ 먹다 – 먹어요.

(으)십시오 가다 – 갑시다./ 먹다 – 먹읍시다.

- (основа 1)+자 가다 – 가자 / 먹다 – 먹자

*읽기

우리 가족은 모두 3명인데, 아버지는 키가 작고 뚱뚱하다. 어머니는

키가 크고 예쁘다. 나는 아버지~~를~~ 닮았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키가 작고 뚱뚱한 편이다. 나는 키 작은 내 모습이 너무 싫다.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읽기

얼마 전부터 나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겼다. 같은 반 남학생을

짜사랑하게 되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백을 못했다.

그 아이는 키도 크고 잘 생겼고 인기도 많아요.

연애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읽기 흥부와 놀부

옛날 한 마을에 형 놀부와 동생 흥부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현제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형 놀부는 욕심이 많아서 재산을 혼자 가지려고 흥부 가족을 내쫓았다. 흥부는 착해서 형을 미워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았다. 봄이 되니 제비가 날아와 흥부의 집 지붕 밑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제비 가족은 새끼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뱀이 제비

집으로 올라왔다. **이에** 놀라 도망치려던 새끼 재비가 땅에 떨어졌다.

흥부는 다리를 다친 새끼 제비의 다리를 고쳐 주었고, 건강해진

제비는 가을이 되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다. 다음 해 봄에 그

제비가 다시 흥부의 집으로 찾아와 씨 하나를 주었다. 흥부가 이것을

심었더니 지붕에 큰 박들이 많이 열렸다. 가을이 되어 흥부는 박을

잘랐는데, 그 안에는 보물들이 들어 있었고 마침내 흥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형 놀부는 흥부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제비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를 부러뜨린 후, 다리를 고쳐 주었다. 다음 해 봄에 그 제비가 놀부 집으로 와서 씨를 주었고, 놀부는 즐거워하며 그 씨를 심어서 드디어 큰 박이 열렸다. 놀부는 부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박을 잘랐더니 그 안에는 보물 대신(에) 도깨비들이 있었다. 도깨비들은 놀부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다. 놀부 가족은 거지가 되어서 흥부를 찾았다. 착한 흥부는 형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 후로 두 현제는 사이좋게 잘 살았다.

1.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만에 (спустя, за) сущ. X + 만에 5년 만에

1. 저는 지난달에 오년 만에 다시 독일에 갔습니다.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спустя 5 лет, я снова поехал в Германию.

2. 몇 달 만에 집에 왔습니까?

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Вы не были дома?

3. 어제 십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쳐 봤습니다.

Вчера первый раз за 10 лет поиграл на пианино.

4. 1층 청소를 세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Уборку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закончил за три часа

만에 (спустя, за)

보기: 고향에 몇년 만에 왔습니까? (5년)

고향에 오년 만에 왔습니다.

1. 집에서 여기까지 몇분 만에 왔습니까? (30분)

... 30분 만에 ...

1. 한국에 몇년 만에 가십니까? (3년)

... 3년 만에 ...

1. 김치를 얼마 만에 드십니까? (1달)

... 1달 만에 ...

1. 영화를 얼마 만에 봅니까? (반년)

... 반년 만에 ...

읽기 오후에 문병 갈까요?

준석: 마이클씨가 오늘도 안 나왔네요.

바바라: 제가 조금 전에 전화해 보니, 감기가 심해서 못 나온대요.

준석: 많이 아프대요?

바바라: 콧물이 많이 나오고, 열이 난대요. 목소리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준석: 그것 참 안됐군요. 어서 나아야 해요. 더구나 며칠 있으면 시험도 있고요.

바바라: 아프면 집 생각이 더 날 것 같은데...

준석: 우리 오후에 문병 갈까요?

바바라: 좋은 생각이예요. 꽃이랑 과일을 좀 사 갑시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심심할 거예요.

아 / 어 보니(까)

- 집 떠나서 혼자 살아 보니까 힘들어요.
- 신영씨가 만든 비빔밥을 먹어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 선생님 댁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안 계셨어요.
- 친구가 빌려 준 잡지를 읽어 보니 재미있었어요.
- 잘 생각해 보니까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사람을 만나 보니 어때요?

*대요.

- 그 영화가 어땠대요? - 정말 재미있대요. 같이 보러 갈래요?
- 그 노래가 부르기 쉽대요? - 아니요. 어렵대요.
- 영숙씨가 그동안 왜 그렇게 바빴대요?
- 그 아이는 날마다 태권도 연습을 열심히 한대요.
- 마이클씨는 매일 아침 한국 신문을 읽는대요.
- 철숙씨가 우리 결혼식에 꼭 오겠대요.

- (으)ㄹ 거래요.

- 내일 날씨가 흐릴 거래요. 하지만 모레는 다시 맑아질 거래요.
- 토미씨는 내년에 박사 공부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래요.

- (이)래요.

- 저분이 누구시래요? - 교수님이시래요.
- 일기예보에서 뭐래요? - 다음 주부터 장마래요.
- 저 새 건물이 뭐래요? - 방송국이래요.

-더구나

- 주말엔 날씨가 나쁠 거래요. 더구나 태풍이 올 거래요.
- 한국말을 아직 잘 못 알아들어요. 더구나 뉴스는 더 못 알아듣겠어요.
- 기침이 심해요. 더구나 열도 나요.
- 진이는 그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든대요. 더구나 값도 비싸대요.

연습

예: 영수, 학교, 못 오다 / 감기에 걸리다

- 영수씨가 왜 학교에 못 온대요?
- 감기에 걸려서 못 온대요.

1. 그 아이 / 울다

2. 마이클, 한턱, 내다

3. 마사코, 목소리, 변하다

4. 수잔, 이사, 가다

연습

예: 진영, 가다/ 2시

- 진영씨가 언제갈 거래요?
- 2시에 갈 거래요.

1. 그 학생들, 어디, 모이다
2. 두 사람, 언제, 문병 가다
3. 철수씨, 전공, 무엇으로 바꾸다

Деепричастие на **느라고**

Относи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к устному стилю речи.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к основе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глагола.

Выступает как признак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причины. В отличие от других деепричастий с этим же значение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речь, как правило, идет о причине, обуславливающей невозможность какого-то действия.

일을 하**느라고** 거기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Я работал, поэтому у меня не было времени пойти туда.

- С глаголом 수고하다 “утруждать себя, стараться” это деепричастие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выражения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какое-то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енное в интересах говорящего, либо в качестве формулы приветствия.
- 일렇게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Спасибо **за то, что** пришли сюда в такую погоду.

- 저는 공부하느라고 청소를 못 했어요. (+)
- 친구를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
- 친구를 만나느라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
- 친구를 만나느라고 드라마를 못 봤다. (+)

- 고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잤어요. (이유)
- 아빠가 평생 일만 하느라고 여행을 많이 못 했다.
- 늦게까지 공부하고 자느라고 핸드폰 알람소리를 듣지 못했다.

먹다 - 먹느라고

보다 - 보느라고

- 피곤해 보여요.
- 시험 공부하느라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 지난주에 바빴어요?
- 네,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어요.
- 동생이 어제 컴퓨터를 쓰느라고 내가 숙제를 못 했어요.

Н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с повелительным и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м наклон.